



지난 7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마당에서 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 홍보를 위한 '제1회 전주한옥마을 별별체험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다.

전주한옥마을의 매력에 '풍덩'

‘별별체험단’, 즐길거리 홍보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전주시가 미래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체험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의 다채로운 공예·체험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열렸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들의 모임인 '전주한옥마을 별별체험단'이 지난 7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마당에서 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 홍보를 위한 '제1회 전주한옥마을 별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한옥마을 내 25개 체험·공예공방이 참여하는 별별체험단은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방들이 딱거리 위주의 한옥마을 관광형태를 개선하고,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맞는 공방들의 네트워크와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구성된 단체이다.

이번 별별체험 한마당 행사에서는 △조사

만들기 △한지 소품 만들기 △부채 꾸미기 등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체험이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각 공방에서 직접 만든 도자기와 천연비누, 공예품 등이 전시·판매돼 25개 공예·체험공방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시는 향후에도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옥마을만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체험·공예공방 모임의 지속적 유대와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골목길 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의 역사와 문화 등 숨어 있는 체험거리를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위한 '한옥마을 별별(別別)지도·순로' 만드는 한옥마을 체험 리플릿을 제작해 관광안내

소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체험·공예공방 홍보에 힘써왔다. 이후 리플릿 제작에 참여한 공방들을 중심으로 별별체험단이 구성됐으며, 참여 공방들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2019 공예주간-전주공예유람'에 참여하는 등 공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단오에 맞춰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이번 체험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박금숙 한옥마을 별별체험단 회장은 "전주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첫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매우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한 다채롭고 흥미로운 공예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한옥마을 방문객에게 체험을 통해 추억거리를 만들어 체험·공예 공방들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위한 관람형 공연 마련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답게 평소 문화공연을 즐기던 장애인에게 수어통역과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별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과 함께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전주'라는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대상 초청 관람형(시연형)공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에게 균등하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장벽 없는(barrier-free) 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문화 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시도로 마련됐다.

공연은 지난 5월 4일 '꼭두'의 창작인형극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시작으로 △6월 1일 중국 김립성 예술단 초청 공연인 '함음' △전통예능의 갈래로 왕 앞에서 추던 '격조 있고 화려한 '궁중무용' 공연이 진행됐다.

오는 7월 6일에는 이수자현 선정작품인 '처용무'(예정)를 선보임으로써 총 4회의 공연이 막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장애인 대상 초청 관람형공연은 매 공연마다 △장애인을 배려한 대사와 장면의 재구성 △단체관람석 우선 배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지원 △공연 이해를 위한 사전 설명 제공 등 '보는' 공연, 들리는 공연'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

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향후에도 교육·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장애인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 등으로 통해 장애인의 삶이 여유롭게 변화되도록 △장애인단체 여가문화예술 지원 사업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 △장애 예술인 장르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연을 함께 관람한 한 비장애인은 "수어통역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연을 자녀와 함께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가 하루 빨리 조성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은 보편적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문화생활을 하는데 적잖은 제한이 있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공감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게 만든 이번 공연과 같이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나누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공연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281-2316)으로 문의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철 기자

우울증인가, 좋은 순간들을 외워라... '해마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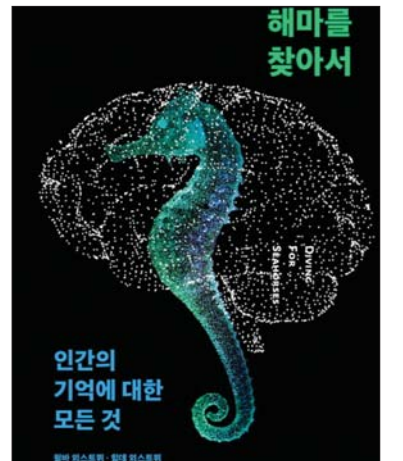
사람은 매일 기억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기억이 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 기억에 대한 불안감은 나이가 들면서 더 커진다.

'해마를 찾아서'는 기억의 본질을 분석한 책이다. 현대 뇌과학적 연구 실험의 성과로부터 얻은 기억의 기술과 조언들이 담겼다.

450여 년 전 해마의 발견에서 시작해 현대의 기억 연구에 위대한 기여를 한 실험과 연구성과를 짚어 나간다. 기억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우리의 경험이 기억으로 저장되는지, 허위 기억과 망각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등을 논했다.

자매인 신경심리학자 윌바 외스트뷰, 언론인 할데 외스트뷰가 썼다. 현대의 기억 연구에 크게 기여한 유명한 실험들을 돌아봤다. 뇌 절제술 후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게 된, 기억 연구의 최대 공헌자 헨리 몰레이스, 그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솔로몬 세레세 프스키도 이야기했다. 잘못된 기억, 망각, 기억술 등의 개념들을 다루며 인간 기억에 대한 유의미한 예시들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바다에 사는 생물과 우리 뇌 사이의 거리는 멀지만, 바다의 해마와 뇌의 해마 사이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새끼들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데 위험이 없고 그들이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배에 알을 품는 해마 수컷처럼, 뇌의 해마 역시 무언가를 품는다. 그건 바로 우리의 '기억'이다. 해마는 기억이 크고 강해져서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지키고 꼭 붙잡아 둔다. 해마는 말하자면 기억을 위한 인류메타이다"

안미란 옮김, 388쪽, 1만6800원, 민음사 /뉴시스

익산 백제왕궁서 '찾아가는 영화관' 개최

초여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줄 '찾아가는 영화관' 두 번째 상영이 오는 14일 익산 왕도 역사관 광장에서 열린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주최하고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영회는 백제 역사와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익산 백제왕궁(왕궁리 유적)

에서 진행돼 관람객들이 영화 관람 이외에도 백제왕궁 주변과 후원을 산책하며 사진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어 한층 더 뜻깊은 영화 상영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28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 '탈모이'다.

'탈모이'는 우리말이 금지된 1940년대에 말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까막눈 관수(유해진)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

(윤계상)을 만나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며 우천·강풍 시에는 금미면 동고도리에 소재한 다목적 체육관에서 상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ismedia.or.kr)나 070-8282-80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백제역사와 숨결이 담겨있는 왕도역사관에서 진행되는 야외상영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